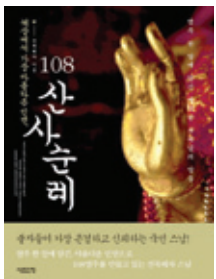


# 혜자 스님의 산사순례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 108산사기도회



**108산사순례**  
선목 혜자 지음  
아침단청 펴냄  
1만5000원

“출가를 한지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산사순례를 하면서 아직도 가보지 못한 사찰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만일, 기도회가 없었다면, 산사에 서린 불타의 정신을 우리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자들이야 오죽 하겠는가. 산사 순례를 나서는 일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이며 위대한 불타의 정신을 만나는 뜻 깊은 자리이다.”

도선사 주지 선목 혜자 스님이 5년간 108산사순례를 이끌며 마음으로 느낀 진솔한 이야기들을 법보신문에 연재해온 것을 책으로 엮었다.

스님은 <108산사순례(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에서 순례기도회를 통해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변화를 느낀 불자들의 경험담을 담았다.

사업에 실패한 처사가 순례 첫 회에 동참하면서 변화된 삶의 태도와 뇌경색으로 고생하던 한 보살이 꾸준히 순례에 동참해 완쾌되는 여정 등 순례를 통해 기쁨을 얻은 이야기도 볼 수 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2006년 9월 도선사 신도들이 주축이 돼 양산 통도사를 시작으로 비슬산 용연사까지 63차에 걸친 사찰 순례를 마쳤다.

혜자 스님과 5000여 회원은 매일 한 곳의 사찰을 방문해 염불과 기도, 108참회,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 사경, 해당 사찰 이름이 새겨진 염주알 보시 등을 통해 신심을 다져오고 있다.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순례자가 돼 전국 산사를 순례하며 진기록들을 세웠다.

그동안 순례한 인원만 30만 명, 5000여 대의 버스가 회원들을 실었다. 공양물로 올려진 쌀만 2100여 가마에 달했고 해당 사찰은 창건 이래 가장 많은 불자가 운집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차츰 회를 거듭하면서 큰 자비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순례 기도가 이뤄지는 사찰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진 작물들을 신도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직거래 장터를 연 것을 비롯해 다문화여성 농업인 인연맺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에게 병원비나 약값을 대주는 하연, 조손가정이나 지역을 묵묵히 지키는 효자·효부에 대한 시상도 병행해 왔다.



낙산사 순례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주고 군 장병들에게 행사 때마다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다문화여성과 도시의 가정을 연결하는 인연맺기가 110건이나 성사됐고, 군 부대에 전달한 초코파이만 해도 230만 개 분량이라고 한다.

스님은 “인생을 살다보면 아름다운 인연들을 많이 만난다. 나에게 있어 첫 번째 인연은 진리의 가르침을 준 부처님과 인연이고 두 번째는 ‘108산사순례’ 길에 나선 회원들과의 소중한 인연”이라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구할 데가 그리 많지 않다. 한 달에 한번 산사를 찾아 마음의 때를 씻고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복이다. 산사순례는 행복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혜자 스님은 14살의 나이로 도선사에서 출가해 은사인 청담(1902~1971·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열반할 때 까지 곁에서 시봉했다. 이후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연찬, 송광사선원에서 수선안거를 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거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을 거쳐 청담학원 이사장, 해명복지원 이사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대표, 불교환경연대의 공동대표, 한국문학평화포럼 이사장이다. 주요 저서로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절에서 배우는 불교> <신 연못에 바람이 울고 있다> 등이 있다.

이내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아픈 마음 흠치는 ‘절도범’ 스님 이야기

美 보스턴 문수사 도범 스님 수상집 펴냄



**구도자의 발자취**  
도범 스님 지음  
행림서원  
1만2000원

“세상이 싫어서 절에 갔더니 세상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道)가 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기에 불교성지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까지 떠돌며 찾고 있습니다. 세속 출세는 시작도 못해봤으며 글자 그대로 속세에서 뛰쳐나오는 출세(出世)를 했습니다.”

美 보스턴 ‘절도범’ 스님의 말이다. 스님이 ‘절도범’인 까닭은 범명이 도범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은사스님에게서 받은 범명이 도범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지 못하니 세속 성을 붙여 쓸 수 없고,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출가했다는 이유로 ‘석도범’이라 할 수도 없다. 절에서 살고 있으니 ‘절도범’”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절도범’ 스님은 “자신은 남의 귀족품이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이 아니라, 남의 슬픔·외로움·아픔·괴로움을 훔치는 절도범이다”라고 설명했다.

‘절도범’ 스님이 최근 <구도자의 발자취>를 펴냈다. 책은 미국에서 20여 년을 지내온 스님이 시주를 받을 때마다 고마움의 편지를 쓴 것을 모아 엮은 것이다.

저자가 살고 있는 보스턴은 미국의 교육 도시이다. 많은 유학생 수 만큼이나 불가 비싸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사찰이 정착하기 어려운 곳에 ‘절도범’ 스님은 1992년 문수사를 창건하고 지금까지도 전법에 진력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에 가기 전 한국차를 알리는 데 앞장섰던 다승(茶僧)이었다. 스님이 차를 만난 것은 은사 일타 스님의 영향이었다. ‘절도범’ 스님은 차운동을 시작하면서 차밭을 가꾸게 됐고, 선방스님들을 대상으로 차문화 강의·시연을 했다. 이것이 선원 최초로 우리 차를 알린 시발점이었다.

저자는 문경 봉암사 주지를 지내면서는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주만 밖 산문을 막던 선승이기도 했다. 10·27 법난 때는 총무원을 찾아가 종단 사태를 수습하는데도 일조했다. 이후 도미(渡美)해 문수사를 창건한 스님은 美 동부 승가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쏘미주 승가회 교문 및 보스턴 문수사, 마이애미 보현사 회주를 맡고 있다.

미국명에서 포교하고 있는 ‘절도범’ 스님의 화백은 유쾌하다.

한 신도가 “스님은 입적 후에 다음 생은 어느 곳에 태어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아마 극락세계에 갈 것 같다”고 답했다. “뒤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라는 반문에 스님이 대답했다.

“초등학교는 면에서, 중학교는 읍에서, 고등학교는 시에서, 대학교는 특별시에서, 승려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 다음 생은 극락세계에 가지 않겠습니까?”

책에는 저자가 출가한 이유를 비롯해 불자로서 삶을 사는 지혜가 가득하다.

“눈은 겹만 보이고 귀는 소리만 들리므로 참으로 중



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사람의 몸에 영양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도 기도가 필요하며 기도로서 맑게 밝힌 마음으로 보면 올바른 길이 보인다.”

저자는 “더 많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소유로써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 욕심주머니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부족하면 괴로움이 따른다”며 “‘이정도만 해도 다행’이라며 스스로 만족해 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깨달음의 길목에서 서성이는 이들에게

안동일 前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에세이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안동일 지음  
마음풍경  
1만8000원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제2대 이사장을 지낸 안동일 변호사가 2008~2011년 지면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글과 인터뷰 등을 모아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를 출간했다.

책은 안동일 거사가 불교계 일을 보며 느낀 수상들을 정리했다.

책에는 2010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진경하고 들은 티벳 <금강경> 법문, 2011년 현장 법사 구도의 길을 따라 실크로드를 여행한 기행문, 전국연불만일회에서의 정도법문을 비롯해 각종 법회의 법문, 이사장의 행복편지, 불교계 신문·방송 등에서 인터뷰한 내용 등을 담았다.



책에는 불교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대통령기록관에서 한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 이야기를 비롯해 안동일 변호사의 경력에 살살이 파헤쳐진 내용도 있다. 저자는 다람살라에서 들은 달라이라마 법문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직 마음의 불성을 찾지 못한 채 깨달음의 길목에서 서성이고 있던 터에 다람살라를 찾아 달라이라마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존자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고 평범했다.”

저자가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꾸준히 마음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생각했다. “14대에 걸쳐 환생한 법력과 내공으로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과 오체투지를 해 오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수행자세를 본받아야겠다”고 그래서 책 제목을 대승의 길을 실천하는 올바른 순서를 뜻하는 티벳어의 ‘림림’을 따라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라고 정했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염마수업	법륜	휴
3	인생을 남비한 죄	박원자	돌
4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범	불광출판사
5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남
6	마음수업	이광정	휴
7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틱낫한	대난출판
8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김정호	불광출판사
9	아침을 여는 365일 행복편지	법상	조계종출판사
10	지관수행	천태지의	비움과소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당신은 부처님**  
무비 스님이 전하는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

“마음이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

무비 스님 지음, 4\*6판, 양장본, 168면, 값 9,000원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 천천히 걸다보면

어린이를 위한 화해와 우정 이야기

건기 명상을 통해 마음처럼 평화롭게 화를 풀고 우정을 지키는 화해와 우정 이야기

콜리주와 감성변화를 반영한 화려한 색채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림들

게일 샬버 글·크리스틴 크릭머 그림 문태준 옮김·윤림, 양장본 9,800원

최신간

## 마음을 찾아가는 한국불교의 길 6Ways to the Heart

“절에 가면 무얼 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외국인 친구가 묻는다면 이 책을 건네주세요.”

한국불교중앙협의회 편 192면 | 20,000원

최신간